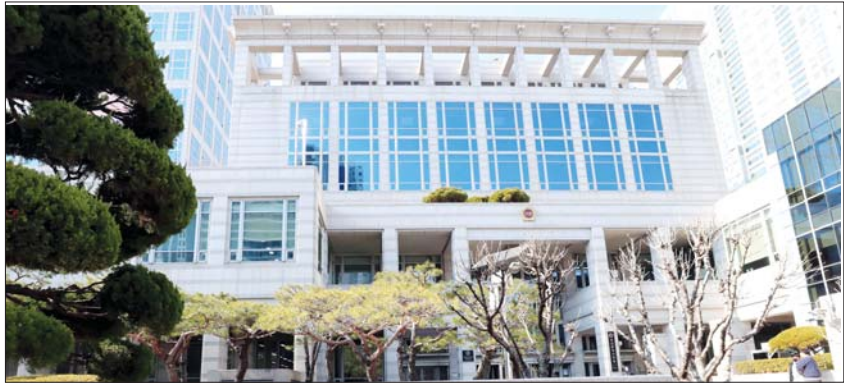


# 부산창업청, 창업투자원으로 변경... 시의회 “행정·시간 낭비”

행안부, ‘청’ 사용 지양 권고  
“굳이 새 출연기관 만들 필요 없어  
공공기관 효율화 기조와 안 맞아”



부산시의회

부산시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부산 창업청이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으로 대체된다.

부산시는 앞서 지난 23일 제320차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금융창업정책관 ‘2024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설명에서 부산창업청이 부산기술창업투자원으로 변경됨을 알렸다.

김성조 금융창업정책관은 “행정안 전부에서 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유사 명칭인 ‘청’ 사용 을 지양하라고 권고하고 기관 설립 목 적인 ‘기술 창업’과 ‘투자생태계’ 활

성화를 기관명에 표시하기 위해 ‘부 산기술창업투자원’으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기획재경 위 위원들은 반발했다. 배영숙 부산 시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은 “지 속적으로 부산시의회가 ‘부산창업 청’이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시는 지

속해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부산기술 창업투자원으로 변경하면 굳이 새로 게 출연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었느 냐”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통해 25개의 출자·출연 기관을 21개로 축 소하고 기능을 조정했다.

배 의원은 이는 부산시의 공공기관

효율화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했 다. 그는 “시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스타트업·벤처 기술 및 투자 관련 기 능을 모아서 별도의 출연기관 보다는 부산경제진흥원 등에 모으면 가능하 다고 주장했다”며 “시에서는 투자청 을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다고 했기에 의회는 기다렸지만, 결국 돌 고 돌아 행정력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 비해서 새롭게 출연기관을 만드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정책관은 “부산시의 창업 기능이 여러 출자·출연 기관으로 흩어 져 있는 것을 모으고 핵심인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산창업청을 만 들기로 했다”며 “청에서 원으로 변경된 다고 하더라도 기능에 있어서는 다른 점이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문경시 ‘친환경 캠핑 페스티벌’ 개최

문경시의 ‘2024 문경 친환경 캠핑 페스티 벌’이 오는 27~28일 1회차, 5월 3~5일 2회차 를 문경새재 일원에서 개최한다.

문경 친환경 캠핑 페스티벌은 최근 인기 인 캠핑, 트레킹 등 레저 관광과 사회 전반의 키워드인 ‘친환경’을 접목해 지속 가능한 체 험 관광으로 기획되었으며, 올해는 문경시 대표 축제인 문경차사발축제와 연계하여 더 욱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문경(경북)=정영우 기자 ycyw57@

### 의령군 의령4·26위령제, 추모식 행사

42년의 한을 달래줄 역사적인 첫 추념 행 사가 경남 의령군에서 26일 오전 10시 의령4 ·26추모공원에서 군 주관 ‘의령4·26위령제’ 및 추모식 행사가 열린다.

이른바 ‘우순경 사건’이라 불리는 공류 총 기 사건은 경찰로 근무하던 우범근 순경이 1982년 4월 26일 마을 주민에게 무차별 총기 를 난사에 주민 56명을 숨지게 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사건 발생 42년 만에 처음으로 위 령제가 군 주최로 개최된다.

/의령(경남)=이도식 기자

## 신안군, ‘순환경제도시’ 조성 앞장

### ‘플라스틱 제로 2050’ 선포식 친환경 소재社 그리코와 협약

신안군은 지난 23일 군청에서 정부 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정책에 따른 선 제 대응의 하나로 ‘순환경제도시, 신 안 『플라스틱 제로(Plastic Zero) 2050』’ 추진을 위한 선포식을 개최 했다.

‘플라스틱 제로(Plastic Zero) 2050’은 신안군 내 농수산 부산물 및 폐자원 등을 활용한 친환경 생분해 플 라스틱 제품의 생산 및 보급으로 2050년까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소비, 처분에 있어 폐기물 발생을 원 천적으로 감축하고, 자연순환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로(0)’로 하 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안군은 이와 관련 자연순환 친환 경 소재 전문 기업 그리코(주식회사 라이스팜, 대표 박재민)와 업무협약



플라스틱 제로 2050 선포식 및 협약식 /신안군

을 체결했다. 그리코(Grico)는 식량 으로 사용 불가한 쌀을 활용하여 플라 스틱 신소재 개발 및 제품 생산에 앞 장서고 있는 기업이다.

협약의 주 내용은 순환경제사회 전 환 촉진을 위해 친환경 제품 생산단지 설립과 개발 제품의 산업화에, 상호 협력 및 추진으로 신안군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과 천연자원 기반의 자연순환형 플랫폼 구축 등에 협력하 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 해남군, 땅끝으로 국도1호선 변경 추진

###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준비 중

해남군이 국도1호선 기점을 땅끝 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한다.

국도1호선은 전남 목포시에서 판 문점을 거쳐 평안북도 신의주시까지 를 잇는 대한민국의 중심 종축 국도 로, 현재 기점은 목포 신외항에 위치 한 목포대교이다.

국도1호선 기점은 1911년 개통 당 시 목포 유달산 아래 과거 일본 영사 관 앞 위치에서 2012년 목포대교가 개 통되면서 목포대교 종점인 충무동 고 하도로 시작점이 변경된 바 있다.

군은 국도1호선의 기점을 땅끝까 지 연장함으로써 땅끝해남에 대한 상 징성을 극대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의 의의를 느끼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기점 변경을 위한 타당성 조 사 용역을 준비 중으로, 올해 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 등 정부 부처에 기점 변경을 건의할 예정이다.

해남군의 국도1호선 기점 변경 추 진은 해남을 잇는 고속도로, 철도 등 대규모 SOC사업이 속도를 높이면서 이에 발맞춰 추진되고 있다.

광주~해남~완도간 고속도로는 지 난달 13일 민생토론회에서 사업의 조 기 추진을 약속받으며 사업추진에 날 개를 달게 됐다. 광주에서 강진 구간 은 2026년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 률 73%에 이르고 있다. 강진~해남~ 완도 구간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 DI) 정책성 평가가 진행 중으로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기본 및 실 시설계를 거쳐 2028년경 착공할 예정 이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 日·中 연휴에 부산 관광객 3만여명 전망

### 日 골든위크, 中 노동절 맞아

부산관광공사는 일본 골든위크 (4월27일~5월6일)와 중국 노동절 (5월1~5일)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최대 3만여명이 될 것이라 고 밝혔다.

이수치는 비수기(1~2월)에 방문하 는 월 방문객에 해당하며, 전통적으 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는 4 ~5월과 맞물려 부산 방문객들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부산=이도식기자

지역 항공과 호텔 예약률은 평소보 다 30%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면세점과 백화점 업계는 구매 고객 대상 바우처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소 비 촉진을 위한 판촉행사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부산시와 공사는 이번 골든 위크와 노동절을 위해 각종OTA프로 모션, 주요 여행사 세일즈를 및 한국 관광공사K-관광로드쇼에 참가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 ‘50주년’ 창원국가산단, DX로 비전 그린다

### 기계산업 필두 주요 업종 성장 견인

반세기동안 원전·방산으로 대표되 는 국내 최대 기계산업 집적지였던 창 원국가산업단지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미래 비전을 그려가고 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974년 4월 출범한 창원국가산단은 50주년을 맞았다. 창원국가산단은 지 난 1973년 1월 정부의 중화학공업화 선언에 따라 기계·방위 산업 육성을 목표로 이듬해 조성됐다. 창원국가산 단은 대한민국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 책과 경제 성장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

다. 50년 동안 기계산업을 필두로 원 전, 방산, 자동차, 조선 등 우리나라의 주요 업종 성장을 견인해왔다.

원전주기기 제작기업인 두산에너 빌리티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인 내연 기관, 터빈제조업이 다수 분포돼 있 다. 두산에너빌리티 협력사 806곳 중 170곳이 창원국가산단에 모여있다.

국내 최대 방산 집적지인 창원국가 산단은 K-2 전차를 생산하는 한화에 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K-9 자주포 를 생산하는 현대로템 등의 생산 거점 이기도 하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여수시 통제영길놀이 3000여명 참여

여수거북선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통제영 길놀이’에 역대 최대 출연진인 3000여명이 참여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통제영 길놀이’는 임진왜란 발발 당시, 경상도 해상을 점령한 일본군을 격퇴하기 위 해 여수에 주둔했던 전라좌수사 이순신 장군 이 첫 출정해 승리를 이끌었던 역사적 사건 을 재현한다.

축제 첫 날인 5월 3일 오후 6시부터, 시민 회관에서 시작해 중앙동 이순신 광장까지 이 어지는 구간에서 펼쳐진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 순천시 ‘우수 웰니스 관광지’ 재지정

전남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 가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재지정됐다. 순천 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는 이번 재지정으로 2017년부터 5회 연속 ‘우수 웰니스 관광지’ 라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 웰니스 관광지’는 2년마다 한국관광 공사에서 웰니스 콘텐츠 적정성, 관광객 유 치를 위한 노력, 향후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 으로 분석·평가해 선정된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한-캐나다 외교차관 면담...경제·안 보 실질 협력 방안 논의 /사진 뉴시스
- ▲ 테슬라, 캘리포니아·텍사스에서 약 6000명 감원 예고

- ▲ 꼬리 부딪히더니 ‘쿵’...말레이시아 軍 헬기 추락
- ▲ 日후쿠시마 제1 원전 정전으로 오염 수 해양 방류 중단



- ▲ 트럼프, 뉴욕서 日야소와 회동... “북한·중국 도전 등 논의” /사진 뉴시스
- ▲ 트럼프, 34년만 엔화 약세에...미국 에 “재앙” 비판